

IMF, 글로벌 성장 예측을 축소하고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IMF Survey online

2012년 1월 24일

- IMF는 글로벌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위험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
- 유로 지역은 경미한 경기침체가 발생하고, 세계의 다른 지역은 경제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
- 재정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
- 국가들은 너무 빨리 재정긴축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피해야 함

유로 지역의 긴장이 증대되어 세계 경제 전망에 불리하게 작용함에 따라, IMF는 금년에 세계 경제가 3.3 퍼센트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을 대폭 축소하면서, 경제 전망이 어둡고 금융 안정성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유로 지역의 긴장이 증대되어 세계 경제 전망에 불리하게 작용함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은 금년에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한 예측을 대폭 축소하면서, 경제 전망이 어둡고 금융 안정성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IMF는 [세계경제전망\(WEO\)](#) 업데이트에서 유로 지역의 위기가 작년 말에 “위험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후에 유로 지역이 2012년에 완만한 경기침체에 빠져 미국, 신흥시장, 개발도상국을 포함하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반적으로, 선진 경제국들의 경제는 현재 2012년에 불과 1.2 퍼센트 확장될 것으로 전망되어 작년 9월의 예측보다 ¾퍼센트 포인트 낮게 조정되었으며, 내년에는 여전히 미약한 1.9 퍼센트 성장에 그칠 것이다. 금년의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은 3.3 퍼센트이다.

“2009년 경기침체의 강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성장률은 매우 높은 실업률을 대폭 완화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IMF는 분석했다.

또한 IMF는 이 수정 예측과 함께 1월 24일에 은행과 자본 시장의 문제를 분석하는 [세계금융안정보고서\(GFSR\)](#)와 정부 부채 및 예산을 분석하는 [재정점검보고서](#)에 대한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위기의 진원지인 유럽

“성장 전망은 보통 정도이고,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IMF의 올리비에 블란차드 경제 카운슬러는 예측했다. 블란차드 카운슬러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애초부터 취약했던 세계 경제의 회복은 지체될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의 진원지는 유럽이지만, 세계의 다른 지역도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블란차드 카운슬러는 유럽의 위기가 악화되면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자들에게 언급했다. “그렇게 되면, 세계는 또 한 번의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블란차드 카운슬러는 적절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 “최악의 사태는 분명히 피할 수 있고, 경제 회복이 다시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고, 반드시 취해야 하며, 또한 신속하게 취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1월 23일에 베를린에서 실시한 **강연**에서 앞으로 진행될 정책 경로의 주요 요소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세계적인 문제의 중심지인 유럽은 강력한 성장, 대규모의 방화벽, 심층 통합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다른 경제국들도 균형 잡힌 글로벌 성장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라가르드 총재는 다국간 컴포넌트에 대해서 IMF는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고 대출 재원을 최대 5,000억 달러까지 증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전히 견실한 아시아

이 보고서는 2012-13 년도에 신흥 및 개발도상 경제국들의 성장률은 평균 5¼퍼센트로 예상되며, 이러한 수치는 2010-11 년도에 달성한 6¼퍼센트보다 상당히 낮고 2011년 9월의 WEO에서 예측한 것보다 약 ½퍼센트 포인트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예측에는 외부환경의 악화와 주요 신흥 경제국들의 국내수요 감소가 반영되었다.

발전을 지속하고 있는 아시아는 경제 전망을 ¼퍼센트 포인트를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13 년도에 여전히 평균 7½퍼센트의 가장 빠른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경제 상황은 주로 리비아의 경제 회복과 다른 석유수출국들의 지속적인 강력한 성과에 힘입어 2012-13 년도에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지역의 대부분의 석유수입국들은 정치적 전환과 악화된 외부환경이 예상보다 장기화되어 성장 전망이 밝지 않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는 현재까지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이 많지 않으므로(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음), 이 지역의 생산 활동은 2012년에 약 5½퍼센트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역파급효과는 중부 및 동부 유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유는 이 지역의 무역 및 금융이 유로 지역 경제국들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에 대한 영향은 거시경제적 정책의 완화가 선진 경제국의 수요 감소 및 증가하는 글로벌 위험 회피 경향의 영향을 대부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교적 경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신흥국과 개발도상 경제국의 경우, 불리한 예측에 비교적 높은 일용품 가격이 반영되어 있다.

유럽은 신뢰 회복이 중요

블란차드 카운슬러는 2012년의 유로 지역의 성장률이 현재 -0.5%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 수치는 2011년 9월의 IMF 전망에 비해 1.6%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각각 2.2%와 1.7%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라고 그는 언급했다.

IMF는 정부가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고 유로 지역의 위기를 종식시키는 한편, 재정 조정을 지속하고, 디레버리징을 억제하고, 유동성과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를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긴급한 정책 과제라고 분석했다.

다른 주요 선진 경제국의 핵심적인 정책 요건은 중기적인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금융 시스템을 개선 및 개혁하는 한편, 경제 회복을 지속하는 것이다. 신흥국과 개발도상 경제국들은 중기 정책을 국내성장 완화와 선진 경제국의 수입 수요 감소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금융 부문의 리스크 증가

IMF는 [GFSR 업데이트](#)에서 국채 스프레드가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금융 안정성이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진입했고, 유럽중앙은행은 유로 지역의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요구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IMF는 유럽의 정책입안자들이 유로 지역의 부채 위기 및 이와 관련된 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종합적이고 단호한 정책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의 정책입안자들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지난 10월과 12월에 열린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정책적 조치들을 실행해야 합니다”라고 IMF의 호세 비날즈 금융 카운슬러 겸 통화 및 자본시장 국장은 언급했다.

IMF는 당국자들이 지불 능력이 있으나 금융 압박에 직면해 있는 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의 방화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들이 있으나, 이러한 제도들은 현재 신용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규모와 유연성을 제공할 수 없다.

은행들은 경기침체를 견디는 능력에 대한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본을 증가시켜야 한다. 자본은 가능한 한 민간 재원으로부터 조달해야 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목적으로 공적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직접 은행 지분을 인수할 능력이 있는 범유로 지역의 금융 지원 제도가 있어야 한다.

당국자들은 위기가 발생할 때 은행이 대차대조표를 조정하는 것을 감독하고 “악성” 디레버리징(경제에 대한 신용 공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자산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국자들은 은행이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디레버리징을 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IMF는 최근 수년 간 신흥시장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 지역(특히 유럽의 신흥국) 은행들의 디레버리징으로 인해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 측면의 진전

많은 선진 경제국들의 재정적자는 2011년에 상당히 감소했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금년에 이러한 적자를 상당히 조정을 할 계획이다. 최신 [재정점검보고서](#)에 의하면 중기 부채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적자의 지속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생산과 고용의 적절한 성장을 지원하는 속도로 조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2012년에 들어서서 선진 경제국의 재정 건전화 속도가 이미 너무 빨라졌습니다”라고 IMF의 카를로 코타렐리 재정국장은 언급했습니다. 건전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면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경우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성장이 지체되어 고용이 감소하는 경우 실업보험수당을 증가시키는 것과 같은 자동 안전장치를 가동해야 한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이러한 안전장치는 수요에 대한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

일부 유럽 국가를 포함하는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금년에 재정 건전화의 속도를 늦출 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국가들, 특히 미국과 일본은 향후 수년 간 부채와 재정적자를 축소할 명확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부채와 재정적자가 적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감소하고 있는 일부 신흥 경제국들은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할 여력이 있다. 다른 국가들은 성장이 지체되는 경우 자동 안전장치를 가동하는 것 이외에 재정 여력이 거의 없다.

또한 일차산품 세입과 외부 자본 유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신흥 경제국들은 자본 유입이 대폭 또는 장기간 동안 감소하는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Latest IMF projections

The IMF projects that the world economy will grow 3.3 percent this year, substantially slower than its estimate four months ago.

	2010	2011	Projections		Difference from September 2011 WEO Projections	
			2012	2013	2012	2013
World Output	5.2	3.8	3.3	3.9	-0.7	-0.6
Advanced Economies	3.2	1.6	1.2	1.9	-0.7	-0.5
United States	3.0	1.8	1.8	2.2	0.0	-0.3
Euro Area	1.9	1.6	-0.5	0.8	-1.6	-0.7
Germany	3.6	3.0	0.3	1.5	-1.0	0.0
France	1.4	1.6	0.2	1.0	-1.2	-0.9
Italy	1.5	0.4	-2.2	-0.6	-2.5	-1.1
Spain	-0.1	0.7	-1.7	-0.3	-2.8	-2.1
Japan	4.4	-0.9	1.7	1.6	-0.6	-0.4
United Kingdom	2.1	0.9	0.6	2.0	-1.0	-0.4
Canada	3.2	2.3	1.7	2.0	-0.2	-0.5
Other Advanced Economies	5.8	3.3	2.6	3.4	-1.1	-0.3
Newly Industrialized Asian Economies	8.4	4.2	3.3	4.1	-1.2	-0.3
Emerging and Developing Economies	7.3	6.2	5.4	5.9	-0.7	-0.6
Central and Eastern Europe	4.5	5.1	1.1	2.4	-1.6	-1.1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4.6	4.5	3.7	3.8	-0.7	-0.6
Russia	4.0	4.1	3.3	3.5	-0.8	-0.5
Excluding Russia	6.0	5.5	4.4	4.7	-0.7	-0.4
Developing Asia	9.5	7.9	7.3	7.8	-0.7	-0.6
China	10.4	9.2	8.2	8.8	-0.8	-0.7
India	9.9	7.4	7.0	7.3	-0.5	-0.8
ASEAN-5 ¹	6.9	4.8	5.2	5.6	-0.4	-0.2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6.1	4.6	3.6	3.9	-0.4	-0.2
Brazil	7.5	2.9	3.0	4.0	-0.6	-0.2
Mexico	5.4	4.1	3.5	3.5	-0.1	-0.2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MENA)	4.3	3.1	3.2	3.6
Sub-Saharan Africa	5.3	4.9	5.5	5.3	-0.3	-0.2
South Africa	2.9	3.1	2.5	3.4	-1.1	-0.6

Source: IMF, World Economic Outlook, January 2012.

¹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Thailand, and Vietnam.



이탈리아 칼비사노의 공장 근로자: IMF 는 신뢰 회복이 유로 지역의 위기를 종식시키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 Paolo Bona/Reuters)